

## 제45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 ☐ 이사회 개요

구 분 제 차 정기이사회

일 시 수

장 소 국립극단 스튜디오 둘

출석인원 총 재적이사 명 중 명 참석 감사 불참

참 석 자 이사장 김상헌 이사 김광보 정재승 이재경 심재찬 윤성천

간 사 사무국장 오현실

### ☐ 보고사항

보고사항 제 차 임시이사회 의결 처리결과

보고사항 년 주요사업 실적보고

### ☐ 심의안건

제 호 의안 인사규정 개정 안

제 호 의안 복무관리규정 개정 안

제 호 의안 임직원 보수규정 개정 안

제 호 의안 여비규정 개정 안

제 호 의안 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안

제 호 의안 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

### ☐ 의결결과

제 호 의안 제 호 의안 원안가결

### ☐ 참고사항

제 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 의 사 록

년 월 일 수

의 장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 성원보고

이 사 장 안녕하세요 국립극단 제 차 정기이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분 중 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님께서서는 건강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사 장 온라인으로만 뵙다가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이사님들도 계시지만 모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차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사항 건 심의안건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보고 후 안건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이 사 장 첫 번째 보고사항은 지난 제 차 임시이사회 의결처리 결과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제 차 임시이사회 의결처리 결과 보고함

이 사 장 지난번 이사회 의결처리결과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심 재 찬 질문 있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문체부

관한 사항입니다 정관개정 안 이나 규정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고 되어있는데요 정관은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보수규정 인사규정 사업계획 및 예산 안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것은 보기도 좋지 않고 이런 관계가 조직을 예측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매번 문체부와 상의하고 진행하는데 자율성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이 사 장 이 내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건지

심 재 찬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죠 정관개정 안 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은 그 다음 규정 개정은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이사회에서 하던지 조직 내에서 하던가요 총괄적으로 문체부에서 검토를 해주면요

이 사 장 정관 개정 안 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나  
요 두 번째는 정관 외 다른 규정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확인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 재 승 유사 기관들 또는 문체부 하위 기관들의 인사규정이 통상 어떤 수준  
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할 것 같아  
요

윤 성 천 정관 변경은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고요 나  
머지 규정들은 임의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 재 찬 그렇죠 정관이야 당연히 승인을 받고요 정관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예산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 사 장 그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규정이든 원칙이  
든 어떻게 되어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고요

심 재 찬 어차피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윤 성 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이견 사실 국립극단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비상임 이사들의 경우 임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명을 위촉으로 바꾸고 상임인 경우에만 임명을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명과 위촉이 혼용 되어 있어요 어감 상 위촉이 정중한 느낌도 있고요 상임이야 통일이 되어있고요 공감이 되고 있고요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 재 찬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동의를 얻는다 정도는 되어야 좋은 나라가 아닐까

이 사 장 법령에 승인 받도록 되어있는 내용 이외의 사항까지 과도하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협의를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표현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지난 이사회 의결 결과 중에 제 호 안건이 원안 수정가결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다른 이사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연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이사회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사무국장님은 그 때 연임규정이 없어서 공식 절차를 통해 재취업을 하셔서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규정만 남은 상황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른 예술단체까지 조사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이사회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 성 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연임이라는 게 재계약이잖아요 연임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 의견이지만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연임을 결정하거나 하면 바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결되면 새로운 채용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기관과 통일성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그러면 첫 번째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 보고해주십시오

간 사 회의자료 쪽 국립극단 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함

이 사 장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 없음)

이 사 장 다른 이사님들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많이 좋아  
졌네요 여기서 유료 점유율이란 거리두기를 적용한 것을 기본으로  
나온 데이터인가요

간 사 네

이 사 장 그럼 년하고 비교해봤을 땐 아직 많이 적은 수치이겠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호 보고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넘어가기 전에 이  
번에 오픈한 국립극단 온라인극장 관련한 홍보영상을 준비했다고 합  
니다 보시고 심의안건 진행 하시죠

간 사 온라인극장 홍보영상 및 하이라이트 영상 관람

이 사 장 이사님들 소감 있으십니까

이 재 경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이 사 장 목표는 라이브처럼 발전하는 건가요

간 사 목표는 그런데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잘 될 것 같네요 요즘 한국의 콘텐츠는 세계 위 아니까

간 사 이사님들께도 홈페이지 가입하시고 아이디 알려주시면 온라인극장 관람하실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추가 질문 없으시면 두 번째 보고사항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심의안건

간 사 회의자료 쪽 제 호 심의안건 재 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 안 보고

이 사 장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 없음)

정 재 승 개정 전에는 회인데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간 사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 재 승 회에 한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 재 찬 그 전에는 아예 없었던 거 아닐까요

정 재 승 회를 위한 포석의 의미였을까요 당연히 회가 되어야 자연스럽죠

이 사 장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이 사 장 법이 바뀐 내용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 호

국립극단 인사규정 개정 안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호 심의안건 국립극단 복무관리규정 개정 안 입니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회의자료 쪽 제 호 심의안건 재 국립극단 복무관리규정 개정 안 보  
고함

이 사 장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이 재 경 이 규정 개정 근거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그대로 적용하신건가요  
개정된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봤는데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몇 몇 가지는 상황에 맞을지가 애매하네요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요 예를 들어 단축근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절박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로 되어있는데 상  
황 상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하면 대체인력 채용과 관계없  
이 허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법령 개정이 이렇다면 법령을 뛰  
어넘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사 장 네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칙은 극단에서 임의로 넣은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넣은 건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나요 심재찬  
이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본다면 자발적으로 넣은 건지 아니면  
상위 법령에 따라 넣은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짚고 넘  
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천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규정은 자율  
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호 안건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심의안건 보고해주  
십시오

간 사 회의자료 쪽 국립극단 년 임직원 보수규정 개정 안 보고함

이 사 장 질문 있으십니까

(의견 없음)

이 사 장 호 안전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심의안전 보고해주십시오

간 사 국립극단 여비규정 개정 안 보고함

이 사 장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하시겠다는 거죠

간 사 네 맞습니다

정 재 승 단위가 달러 라는 건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달러 로 하죠

간 사 공무원 여비규정에 달러 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심 재 찬 국외 출장관련이라 달러 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추가 질문이나 의견 없으시면 호 안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심의안전 보고해주십시오

간 사 회의자료 쪽 국립극단 년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안 보고함

이 사 장 호 안전을 살펴보니 예산의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 횟수 변경  
에 대한 승인 내용인거죠

간 사 네 경상비나 사업비에서 변동은 없고요 횟수가 줄어들거나 취소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 장 년 승인 된 예산중에 금액은 변동 없이 항목 상 조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특별히 이의 없으시면 호 안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심의안전 보고해주십시오

간 사 회의자료 쪽 국립극단 년 사업계획 및 변경 안 보고함



이 사 장        년 대 사업 추진 방향이 나왔는데요 방향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년도 사업 추진 방향은 뭐였죠

간 사    확인해보겠습니다

심 재 찬    이것은 연극계의 현안이기도 해요 동시대의 연극을 선도하겠다는 게 추상적이기도 한데 이런 방향성을 꾸준히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 장    나머지 두 개의 방향은 괜찮으십니까

심 재 찬    동시대 연극 선도 에서 예술가들의 창작의 자유 기회 부여 확대 창작공감 사업 활성화 추진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다른 개념인 관객 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관객 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창작범위 내 관객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관객이 따로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연극 대 요소의 관객이 아니고 관객이 창작활동 창작범위에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객의 개념을 바꿔서 그런 것들이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관객이 들어옴으로써 현장에서 우려했던 자생력에 대한 문제도 풀릴 수 있는 여지가 보이고요 민간극단에서 하기 어렵지만 공공이나 국립에서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 장    연극을 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객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창작 범위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말씀이지요

심 재 찬    관객이 창작과 비평을 동시에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연극 뿐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객을 넘겨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 장    여기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셨습니다

심 재 찬    그게 동시대 연극 아니겠습니까

이 사 장        라는 게 요즘 유행이어서 여기서 보게 되는구나 싶지만 당연히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시대적인 정신과 흐름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방향인 고객과 무대 확장 부분도 코로나 시대의 시의 적절한 방향성 같네요 후원사업은 어떨까요 펀딩같은 거요 자체 플랫폼을 만들면 상당히 직격하기 어려운데 와디즈 같이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는 극단으로서는 부적절할까요

정 재 승        좋은 생각 같은데요

이 재 경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것을 공공기관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 사 장        하지만 국립단체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재 경        너무 상업적인 부분으로요

이 사 장        이 부분은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년 방향으로 잡으셨으니까 전문가 분들과 상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 경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난        년간 코로나 때문에 특히 연극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대 사업 추진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상화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자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상화라는 표현이 여기에 녹아져있긴 합니다만 경영이란게 트렌디하고 국립기관으로써 화두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객 제작을 포함해서 정상화하여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노력과 예산이 집중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진방향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의 키워드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 장        연극을 선도하는 것도 좋지만 본연의 연극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 재 승 남녀 성비 이슈는 없겠죠

간 사 오히려 요즘 연출이나 창작진 쪽에서 여성이 많이 두각 되고 있습니다  
다 성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추진방향 번째 연극 경영 부분에서요 심재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관객을 생각하자는 게 명쾌할 수는 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 보다는 동시대 연극 관객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나 민감도가 높아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잘 진행 해야겠지만 관객들 소리를 듣는 부분이 강조가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표현이 경영이라고 되어있어서 저희도 단어 선택에 있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런 의도를 작품에도 녹여 내고 행동이나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도 같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성 천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고려가 다 된 부분이겠지만 어느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어야할지 고민해보고 중점을 뒤편할 것 같고요 이재경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방향성에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입체적으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 재 승 예산 부분은 작년이나 제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오르고 있는 건가요

간 사 네 맞습니다

이 사 장 어려울 텐데 국고 보조금이 올랐네요

심 재 찬 이게 오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 재 승 그러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더 증액을 시켜줬다니 고맙네요

윤 성 천 지역문화 활성화도 할 수 있도록 좋은 공연이 많은데 지역은 현재 문화예술 부분을 실행하지 못하는 곳이 특히 많아서요

심 재 찬 영상화 사업에 역이 넘어가면요 과거 영국 에서 셰익스피어를 따로 제작해서 만들잖아요 그럴 바에는 모든 것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를 선정해서 컬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만들어보는 게 연극의 영상화의 개념을 살려서 이 정도 예산이면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두 세 개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사 장 이사님 말씀은 고 퀄리티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심 재 찬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개념이 조금 달라요 더군다나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시대에 언제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 장 셰익스피어 말씀하신 건 어떤 맥락을 가지고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거죠

심 재 찬 바이러스 문화를 같이 가려면 하나의 장르에 속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는 또 다른 장르로요 예산이 이 정도 된다니까

이 사 장 감독님의 계획을 들어보죠

심 재 찬 이 정도 예산이면 골고루 하기 보단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김 광 보 온라인 극장이라는 것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비디오라는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장르로 발전시켜야 한다 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성 천 금년에 예술의 전당 국립중앙극장 국립극단 모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전반적으로 평가가 있어야할 것 같고 내년까지는 예산이 있을 예정입니다

심 재 찬 라이브는 실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극장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다른 장르로 봐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라이브처럼 쏘는 것이 아니라 찍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니까요

간 사 라이브도 실시간 스트리밍은 아니고요

정 재 승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은 어때요

간 사 네 방금 심재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 된 새로운 공연 장르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정재승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장르는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도전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윤 청 천 요즘 스포츠 중계를 보면 카메라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전 경기는 보면 카메라 몇 대가지고 중계해주고 그랬잖아요 심재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장비나 카메라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 재 찬 어느 한계를 정해서 시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장비도 갖춰야하고요 시스템도 있어야하고요

정 재 승 메타버스 시대에 발 맞춰서 가상의 공간에 극장이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공연라이브를 보는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라이브 스트리밍정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하기 좋거든요 아직 응용에 한계가 많은데 공연은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 사 장 심재찬 이사님 말씀은 어렵사리 예산을 마련해주셨으니 사업에 나눠 쓰기 보다는 메타버스 같은 건 관객이 모이기 쉬우니까 보여주는 걸 입체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 광 보 저희 온라인 극장도 형편없는 건 아니고요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찍었는데 피드백을 받아보면 관객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하거든요

이 사 장 네 새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하라는 말씀들인 것 같고요 더 추가 질의나 의견 있으신가요

심 재 찬 기타사항인데요 시즌단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즌단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김광보 감독님이 오셔서 년 동안 진행 할 작품의 연출가들이 모여서 캐스팅을 할 때 작품씩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준건데 시즌단원이라는 것이 정체성도 모호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시즌단원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이 상태로 가는 게 현실적이고 낫다고 봅니다 년 년 보다는 미리 년 전에 작품에 대해 캐스팅을 할 거니까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게 정식 단원이 없는 이상에는 낫지 않나 싶어요 시즌단원이 기인가 기 정도 됐는데 시즌단원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단원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이 사 장 호 안전에 추가 질문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 성 천 아까 보고안전 중 정관 등 승인 관련해서요 정관 내용 중에 인사규정 직제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까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정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관대로라면 승인까지는 받아야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내용만 승인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 장 이사님의 진취적인 의지는 좋습니다만 너무 무리가 되는 거라면

윤 성 천    사실 정관에 시행일 부칙을 안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규정은 시행  
일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 장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어렵게 열린 이사회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술감독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김 광 보    부임한지 어느덧    년이 넘었습니다 국립극단을 이끌면서 코로나 상  
황에서 저희 직원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  
고 있고요 여러모로 사업도 많아지다 보니까요 팀장들과 직원들  
하고 잘 논의해서 국립극단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  
습니다

이 사 장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차 정기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현	인	이 사	김광보	인
-----	-----	---	-----	-----	---

이 사	이재경	인	이 사	정재승	인
-----	-----	---	-----	-----	---

이 사	심재찬	인	이 사	윤성천	인
-----	-----	---	-----	-----	---